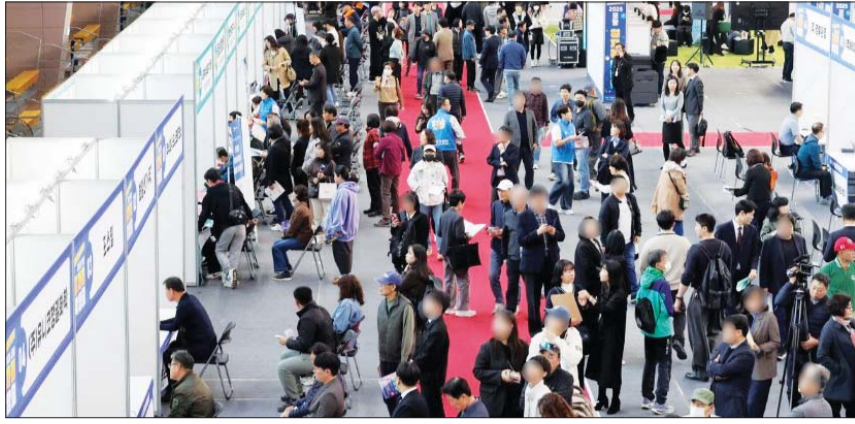


포항시, 산업전환·세대맞춤형 일자리로 고용 활력 높인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세부계획 수립 6198억 투입·3.4만개 일자리 목표 혁신·채류형·맞춤형 등 정책 추진 청년·여성·중장년 맞춤 고용 지원 노인·생활밀착 공공일자리 확대



지난해 10월 만인당에서 열린 2025 포항일자리박람회.

포항시가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회의 도시' 실현을 위해 2026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총 6,198억 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700개 늘어난 3만 4,5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해 공표하는 제도로, 포항시는 매년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청년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

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2025년 12월 기준 포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32.9%에 달하는 반면 청년층 비중은 13.7%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2026년에는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일자리 ▲지역 특화 지원 기반 채류형 일자리 ▲모두가 누리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 일자리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혁신 일자리 분야에서는 산업 인공 지능 기반 제조혁신 인력 양성과 스마트제조·디지털 전환 지원, 이차전지 산업 업종 전환 등을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채류형 일자리 분야에서는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유산 해설사 육성 등 관광·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

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여성 전기기능공 양성,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센터, 자투리시간거래소,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 해소도 병행한다.

생활밀착형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 관리 등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과 '포항형 일자리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 발굴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성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장은 "산업 전환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발광형 표지 도입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전 구간에 발광형 도로표지를 도입하며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2026년 도로표지 정비공사'의 핵심 공정인 발광형 도로표지 22개소 설치를 지난 17일 마쳤다고 밝혔다. 설치 위치는 광안대교 상·하층 주요 분기점 등 시인성이 취약한 지점이다. 발광형 도로표지는 고휘도 LED를 활용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뛰어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야간이나 우천 시 도로 정보 전달력이 일반 표지에 비해 높아 광안대교를 처음 찾는 관광객과 고령 운전자의 주행 편의를 높인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목포시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 운영

목포시는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는 GX(Great eXperience)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대전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용해동 동아사거리에서 목포기후·환경네트워크와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함께 출근 시간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할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광주시, 정책통합 속도낸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착수 18대 과제 실행계획 구체화 작업 속도

전남도와 광주시가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책 통합과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19일 시·도에 따르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18대 과제 중 주요정책 통합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이번 방안에 담고 있다.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적용할 정책의 밑그림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6월까지 분야별 통합방안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7월 출범 이후에는 이를 실행·보완할 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중점 검토 대상은 통합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시책, 실국 소관 핵심 시책,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특례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등이다.

정책 통합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시·도는 실국과 연구원이 참여하는 정책통합·행정서비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통합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주요 정책 목록을 작성한 뒤 시·도 여건과 정책 방향을 비교·검토하고 핵심 통합정책을 분석,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일관된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요 예산을 추계하고 시·도 간 차이와 통합 방향을 반영한 분야별 정책 추진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무안(전남)=양승규 기자 ysn6313@



지난 16일 중국 선전시 열린 포스트 APEC 투자포럼 개막식. /경북도

경북도, 中 선전시 투자유치 협력 확대

포스트 APEC 中 투자포럼 열고 교류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린 포스트 APEC 경상북도 중국 투자포럼을 열고 글로벌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했으며, APEC 개최도시 간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경북의 투자 환경을 국제 시장과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도 및 시·군 관계자, 기업인과 함께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종선 상무영사, 선전시 관계자, 현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선전시 난산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고 글로벌'과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텐센트, DJI 등 글로벌 IT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기반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중국 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선전 하이테크 기업의 경북 유치를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전시 중소기업발전추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 미래차 편의부품 기반구축 사업 선정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170억 투입

경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재원은 국비 5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90억원으로 구성된다. 수행은 경북테크노파크가 맡는다.

핵심 내용은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 건립과 주행환경 변화 대응 장비 구축, 탑승자 중심 핵심부품 개발 지원이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는 현재 총사업비 851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기공센터, 탄소소재 부품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개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여기에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가 추가되면 소재·부품·배터리 안전에 더해 편의·안전 분야까지 아우르는 산업 기반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기업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맞춤형 기술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설계 단계 기술 적용, 신뢰성 시험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화

해의 조선 호황 속 5개분야 사업 추진

경상남도가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활용해 지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조선소와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5개 분야 12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개 분야는 ▲조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강화 ▲한미 협력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 ▲조선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이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거제시 장목면에 '중소형 조선소 생산 기술 혁신(DX)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에는 용접로봇 등 생산 자동화 장비 22종과 자동화 실증 테스트베드가 갖춰진다. 또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40억원을 투입, 중소형 조선소와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 발굴부터 설계, 성능 검증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영양산나물축제' 내달 7일 개막

영양군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영양문화원 및 읍내시가지에서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영양산나물축제는 매년 5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봄 축제로, 자연이 선사하는 산나물의 향과 맛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관광객 유입을 이끌어온 지역 대표 콘텐츠다. 올해 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을 주제로 먹거리와 체험, 스토리를 결합한 미식 중심 축제로 운영된다. 특히 산나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 요리와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며, 축제의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887@

경상국립대학교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대학 선정

경상국립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첫 운영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기업의 실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산학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경상국립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류·발표 평가에서 지역 그린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기반과 실습·프로젝트 중심 교육 과정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됐다. /경남=이도식 기자